

# 칼자루 친 KIA '기적의 가을' 만든다

11경기 중 5승 6패하면 5위 수성  
7위 롯데와 맞대결 4게임 관건  
오늘 NC 최종전 전상현 선발 출격  
이번주 대구-인천-잠실 강행군

## ■KBO중간순위 (1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1	두산	137	89	0	48	0.650	0.0
2	SK	136	76	1	59	0.563	12.0
3	한화	138	74	0	64	0.536	15.5
4	넥센	141	74	0	67	0.525	17.0
5	KIA	133	66	0	67	0.496	21.0
6	삼성	140	65	4	71	0.478	23.5
7	롯데	132	61	2	69	0.469	24.5
8	LG	140	65	1	74	0.468	25.0
9	KT	136	54	3	79	0.406	33.0
10	NC	139	56	1	82	0.406	33.5



KIA 타이거즈가 '기적'의 가을을 만든다.

KIA는 9월 마지막 주말을 모두 승리 장식하면서 기분 좋게 10월을 맞았다.

올 시즌 4승 9패로 열세를 보였던 한화 이글스를 상대로 2승을 챙기면서 6위 삼성 라이온즈와 2.5경기 차, 7위 롯데 자이언츠와 3.5경기 차가 됐다.

배랑 끝에서 맞이했던 가을이었다. 51승 59패, -8에서 시작했던 9월. 순위도 8위까지 떨어졌었다. 5위 LG 트윈스와 2.5경기 차, 6위 삼성과 1.5경기 차, 7위 롯데와는 1경기 차였다.

그러나 타격이 살아난 KIA는 마운드 위기 속에서도 9월 15승 8패의 성적을 내면서 뒤늦게 순위 싸움에 시동을 걸었다. '1'까지 줄였고 5위 싸움의 유리한 고지에 섰다.

6위 삼성과 8위 LG는 4경기만 남겨뒀다. 두 팀이 4경기에서 모두 이겨도 삼성의 승률은 0.493, LG는 0.483이 된다.

KIA가 남은 11경기에서 5승 6패(승률 0.493)를 하면 자력으로 두 팀을 밀어내게 된다. 여기에 KIA가 삼성과 오는 3일 시즌 최종전을 앞둔 만큼 이 경기를 가져온다면 삼성의 추격을 빠르게 뿌리칠 수 있다.

롯데와의 경우의 수는 조금 더 복잡하다. 롯데는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12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최근 10경기에서 8승 2패를 거두며 가장 뜨거운 팀이기도 하다.

롯데가 12승을 달린다고 가정하면 단순 수치상으로 KIA는 5위 수성을 위해 9승 2패를 수확해야 한다. 하지만 두 팀은 4번의 맞대결을 남겨두고 있어 계산이 더 복잡하지만, 자력으로 5위가 가능한 상황이다.

KIA는 오는 9일 사직 원정에 이어 11일부터 롯데와 홈 3연전을 갖고 2018시즌을 마무리한다. 롯데와의 마지막 4경기를 치르기 전에 최대한 승리를 쌓아놓는 게 중요하다.

여유롭게 '마지막 한주'를 맞이 위해서 이번 주 원정 부담을 털어내야 한다.

2일 NC 다이노스와 시즌 최종전을 치른 KIA는 3일 대구로 가 삼성과 마지막 대결을 벌인 뒤 문학으로 올라간다. SK 와이번스와 4·5·6일 3연전을 치르고, 7일 잠실에서 두산 베어스와 올 시즌 마지막 만남을 갖는다.

올 시즌 25승 41패, 0.378로 뚝 떨어져 있는 원정 승률을 올려야 하는 한 주다.

빠듯한 잔여 경기 일정도 부담이다. 비와 미세 먼지 등으로 11경기를 치르지 못한 만큼 KIA는 이번 한 주 쉬 없이 달려야 한다. NC와 야간 경기를 치른 KIA는 대구로 이동해 개천절인 3일 오후 2시 경기를 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문학까지 먼 길을 가야하는 만큼 체력도 중요하다.



전상현

마운드 고만도 남아있다. kt전 5연승과 함께 복귀를 알렸던 한승혁이 지난 30일 한화와의 경기에서는 고질적인 제구 난조를 노출하며 물음표를 남겼다. 선발 자원이었던 임기영과 팻턴도 기복을 보이면서 불펜으로 배치됐다.

2일 시즌 두 번째 선발로 나선 전상현의 성적에 따라서 한 주 마운드 계산도 달라진다. 상무에서 '퓨처스리그 디승왕'에 등극한 전상현은 전역 후 4경기에 나와 9.1이닝을 소화

하면서 3.86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삼성전에서 선발로도 나선 등 1군 적응을 끝낸 만큼 이번에는 긴 이닝을 버티며 5위 굳히기에 힘을 보태야 한다.

전상현의 상대는 처음 선발로 나선 NC 박진우다. 박진우도 지난 9월 경찰야구단에서 전역한 '예비역'이다. 8차례 불펜 투수로 나와 3.48의 평균자책점으로 1승 1홀드를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타이거의 굴욕

유럽, 美 꺾고 라이더컵 우승... 우즈 4전 전패

유럽이 미국을 상대로 하는 남자골프 대항전 라이더컵에서 '안방 불패' 행진을 20년 넘게 이어갔다.

토마스 비외른(덴마크) 단장이 이끄는 유럽은 1일 프랑스 파리 남서부 일드프랑스의 르 콜프 나시오날 알바트로스 코스(파71)에서 열린 제42회 라이더컵 대회 마지막 날 싱글 매치플레이 경기에서 승점 4.5를 추가해 올해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전날 포볼(팀 베스트 스코어 방식)과 포션(두 명의 선수가 공 하나를 번갈아 치는 방식) 경기까지 10-6으로 앞선 유럽은 이날 한때 미국에 1점 차까지 쫓기기도 했으나 이후 토르비에른 올센(덴마크), 온 램(스페인)이 승리를 따내 3점 차로 다시 달아났다.

이후 이언 폴터(잉글랜드)와 프란체스코 몰리나리(이탈리아)가 승리를 추가하며 이번 대회 우승 필요 점수인 14.5점을 채워 남은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우승을 확정했다.

유럽은 1993년 잉글랜드 대회에서 미국에 패한 이후 1997년 스페인 대회부터 유럽에서 열린 라이더컵 6전 전승을 기록했다.

2년 전 미국 미네소타주 채스카에서 열린 대회에서 승리한 미국은 통산 전적에서는 여전히 26승 2무 14패로 앞서 있다. 그러나 유럽은 2000년 이후 9회 대회에서 7승 2패 등 최근 대회에서 좋은 흐름을 지속했다.

미국은 '필승 카드'로 내세운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4전 전패를 당한 게 패인이었다.

우즈는 첫날과 이틀째 포볼에 연달아 패트릭 리드와 한 조로 출전했으나 두 번 다 몰리나리-토미 플리트우드(잉글랜드) 조에 졌다. 전날 포션에서는 브라이언 디셀보와 한 조로 나와 역시 몰리나리-플리트우드 조에 패하면서 3전 전패가 됐다.

이날 싱글 매치 플레이에서 온 램(스페인)과 상대한 우즈는 12번 홀까지 올 스퀘어로 맞서다가 13, 14번 홀을 연달아 내주면서 패색이 짙어졌다.

2012년 대회 이후 6년 만에 라이더컵에 선수로 다시 출전한 우즈는 2개 대회 연속 승리 없이 대회를 마쳤고, 역대 라이더컵 전적 13승 3무 21패가 됐다.

우즈가 선수로 출전한 8차례 라이더컵에서 미국은 1승 7패에 그쳤다. /연합뉴스

## 석현준, 벤투호 승선

축구 대표팀 12일 우루과이·16일 파나마 평가전

석현준(대구)이 '벤투호 2기' 축구 대표팀에 승선해 손흥민(토트넘)과 함께 공격을 이끌게 됐다. K리그 박지수(경남)와 이진현(포항)도 처음으로 A대표팀 유니폼을 입는다.

파울루 벤투 축구 대표팀 감독은 1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오는 12일 우루과이, 16일 파나마와의 국내 평가전에 나설 대표팀 2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에서 활약하는 석현준은 2016년 10월 러시아 월드컵 최종엔선 이후 2년 만에 다시 A대표팀의 부름을 받았다.

190cm의 장신 공격수인 석현준은 2010년 네덜란드 아약스와 계약해 유럽 무대에 진출한 후 포르투갈, 터키 등을 거쳐 이번 시즌 리그앙으로 승격한 스타드 랭스에서 뛰고 있다.

오랜만에 복귀하는 석현준은 손흥민, 황희찬(잠바 오사카), 이재성(FC도쿄), 김민재, 이을(이상 전북), 김문환(부산), 홍철(수원) 외에 박주호(울산)가 새로 부름을 받았다.

공격수 가운데 1기에 발탁됐으나 이후 부상한 지동원(아우쿠스부르크)은 빠졌다.

미드필더진에는 기성용(뉴캐슬)과 더불어 지난 1기에서 빠졌던 구자철(아우쿠스부르크)이 벤투 감독의 첫 부름을 받았다.

막내 이승우(엘라스 베로나)와 정우영(알사드), 지난달 평가전에서 좋은 활약을 보인 남태희(알두하일)와 황인범(대전)도 다시 승선했다.

아울러 23세 이하(U-23) 대표팀에서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합작한 이진현은 아시안게임과 소속팀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생애 처음으로 A대표팀에 합류했다.

수비수로는 김영권(광주)에 버그라네, 정승현(가시마), 장현수(FC도쿄), 김민재, 이을(이상 전북), 김문환(부산), 홍철(수원) 외에 박주호(울산)가 새로 부름을 받았다.

경남의 수비수 박지수도 처음으로 A대표팀에서 태극마크를 달았다.

골키퍼에는 부상한 조현우(대구)가 복귀한 김승규(빗셀 고베), 김진현(세레소 오사카)과 골문을 지키게 됐다.

지난 8월 발표한 1기 명단 24명에서 4명이 빠지고, 5명이 추가됐다. 25명 가운데 국내파가 10명, 해외파가 15명이다.

해외파 중에서는 유럽 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7명, 일본이 5명, 카타르 2명, 중국이 1명이다.

선수들은 오는 8일 파주 축구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소집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그대들 있어 행복했네

류현진 예전 기량 되찾고 추신수·최지만 홈런 펄펄... 빅리거들 MLB 맹활약

한국인 메이저리거는 2018년 화려한 한 해를 보냈다. '괴물 투수' 류현진(31·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은 부상을 극복한 뒤 '몬스터'로 돌아왔고, '출루의 달인'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는 현역 최장 연속경기 출루 신기록과 함께 첫 올스타의 기쁨을 만끽했다.

오승환(36·필라델피아 필리스)은 등지를 옮긴 뒤에도 든든하게 뒷문을 지켰다. 최지만(27·탬파베이 레이스) 역시 트레이드로 야구 인생이 활짝 폈다. 강정호(31·피츠버그 파이어리츠)는 시즌 막판 극적인 복귀로 내년 시즌에 대한 희망을 키웠다.

류현진의 2018시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고진감래'다. 8월에 복귀한 류현진은 후반기 다저스의 순위싸움을 이끈 일등공신이었다. 최근 3경기에서 3승 평균자책점 0.47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류현진의 정규시즌 최종 성적은 7승 3패 82.1이닝 평균자책점 1.97이다. 부상 탓에 규정이닝(162이닝)은 채우지 못했지만, 빅리그 진출 이후 처음으로 1점대 평균자책점을 거뒀다. 추신수 역시 뜻깊은 시즌을 보냈다.

전반기 활약을 앞세워 추신수는 빅리그 데뷔 14년 만에 처음으로 올스타전에 출전하는 기쁨까지 맛봤다.

추신수는 52경기 연속 출루로 현역 최장 신기록도 달성했지만 이후 타격 부진을 겪으면서 타율 0.264에 출루율 0.377, 21홈런, 62타점, 83득점, OPS 0.810으로 시즌을 마감했다.

밀워키에서 개막을 맞이한 최지만은 6월 탬파베이로 이적했다. 7월 빅리그에 다시 올라온 뒤에는 찬스에 강한 면모를 보여



류현진



추신수

주며 출전 시간을 늘려갔다. 지난달 8일 볼티모어전에서 개인 통산 2호 만루포를 터트렸고, 사흘 뒤에는 클리블랜드전에서 9회말 2사 후 역전 끝내기 2점 홈런을 날렸다. 올 시즌 61경기에서 타율 0.263, 10홈런, 32타점, 25득점, OPS 0.863으로 가능성을 보여준 최지만은 내년 시즌 본격적인 주전 경쟁에 나선다. /연합뉴스